

“구룡 거주민 재정착 최우선... 임대주택 건설·임대료 인하”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실시계획 인가

2015년 구역지정... 4년만에 인가
4000세대 공공임대 주택 건설
기존 거주민 임대주택 재입주 추진



구룡마을 임대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오는 11일 인가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뜻한다. 각 부분별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따위를 명시해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다.

구룡마을은 도시내 생활터전을 상실

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시는 “1980년 말부터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성돼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라며 “오·폐수, 쓰레기 적치로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

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구 협

의제,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 분양을 방지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해당 구역에 4000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과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구룡마을에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

해 세계적인 명품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TF를 구성·운영해 단지 개발의 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자치구, 거주민, 토지구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서남권 미술관 운영 용역 추진

소상공인 수집·관리 체계 확립 작품 수집 방향성 구상 골자

서울시가 문화 불모지 서남권에서 효율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9000만원을 투입해 ‘서서울미술관 작품수집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소장품 수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서서울미술관은 2023년 8월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일대(금천구청 뒤 금나래중앙공원 내)에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 연면적 7000㎡(토지 면적 1만 6331㎡) 규모로 들어선다.

시는 문화 취약지역인 서남권에 미술관을 건립해 문화·교육적 환경을 제고하고 시 전역으로 미술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시는 “현재 시내 문화시설은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돼 있고 금천, 구로, 양천 등 서남권에 국공립미술관이 전무하다”며 “교육혁신지구인 금천의 교육자원과 미술관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청소년 창의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서울미술관 정체성 검토, 특화 컬렉션 수집 관련 절차 확인 및 개선 방향 도출, 내·외부 전문가

와 심화발전 전략 논의, 작품 수집 중장기 방향성 구상을 골자로 한다.

주요 과업은 ▲국내·외 유사한 기관의 컬렉션 동향 분석 ▲서서울미술관 운영발전계획 점검·수집 차별성 제안 ▲특화 컬렉션의 시대, 장르, 매체, 작가 등 범위 좌표 설정 및 대상별 수집 전략 제시 ▲수집 대상 작품 소장처, 가격, 이력 정보 목록화 ▲기존 수집정책·법령 보완점 모색 ▲시대와 미술관 특성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집 방안 발굴 ▲특화 장르 기술지침과 분류체계 조사 ▲서서울미술관 중장기 작품 수집 5년 주제 설계 ▲작품 관리·보존·운영 인력과 예산 구상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서서울미술관 작품수집 개발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3차 추경안 제출... 경제활성화 초점

(2조2390억 규모)

포스트 코로나 공공일자리 4.8만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에 3005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2조 2390억원 규모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3월 24일 1차 추경 8619억원, 5월 8일 2차 추경 1조6938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세 번째 추경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총예산은 지난해 말 편성된 39조5359억원에서 1~3차 추경예산과 국고보조금을 더한 5조 1709억원이 증가해 44조7068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1, 2차 추경이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했다면 3차 추경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 보호,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3월부터 닥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3060억원을 들여 일자리 5만1000개를 창출한다.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포스트 코로나 공공일자리’ 4만8000개에 2666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000개는 문화예술 또는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일자리 1000개를 위한 118억원, 배달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38억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장려금 11억원도 있다.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은 보전과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에는 3005억원을 배정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 수립과 같은 안전 강화에는 2525억원을 넣는다. 재난관리 기금 1583억원 확충, 버스·지하철 방역비 6개월분 155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80억원 등이다.

그린뉴딜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750억원을 쓴다. 도시 숲 가꾸기 공공일자리 1980개 296억원, 전기 시내버스 225대 보급 248억원, 수소 버스 충전소 2곳 구축 120억원,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59억원 등이다. /김현정 기자

박원순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정의로워”

(서울시장)

“재난·위기,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영향”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북에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더 큰 고통을 당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게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

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현정 기자

CAC 글로벌 서밋, 유튜브 1000만뷰 돌파

서울시 프랑스·美 등 외신 현장 취재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논의를 위해 이달 1~5일 개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의 유튜브 조회가 1000만회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CAC 글로벌 서밋의 여러 프로그램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4일 ‘총균

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와 90분간 진행한 대담은 105만뷰를 넘어서었다.

이번 회의는 총 15개 세션으로 나눠 1355분간 진행됐다. 국내 70명, 해외 86명 등 연사 156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카타르 알자지라, 터키 TRT, 스페인 EFE, 프랑스 르몽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매체들이 현장을 찾아 취재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